광주시 채무 1조 육박…재정위기 현실화 우려

2011년 7476억→지난해 9550억… 연평균 6.11% 증가

중기계획의 2배… "지방채무 상환금 확보 채무 줄여야"

광주시의 채무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세계수영대회 개최,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등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재정위기 현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연도별 채무현황에 따르면 채무잔액은 2011년 7476억원을 기록한 뒤 2012년 7532억원, 2013년 7987억원, 2014년 8922억원, 2015년 9754억원, 지난해 9550억원에 이른다.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로 2015년에 채무가 급증했다가 지난해 다소 줄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시설비로 2012년부터 해마다 최소 40억원, 많게는 620억원의 빚이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액도 2012년 56억원, 2013년 455억원, 2014년 935억원, 2015년 832억원 등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이 6.11%로,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한 3.7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채무비율도 2011년 20.75%, 2012년 20.65%, 2013년 20.07%, 2014년 21.50%, 2015년 21.69%, 2016년 21.5%로 2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수영대회가 열리는 2019년에는 채무액이 1조166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완공되는 2022년에는 채무잔액이 1조16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향후 추가 채무가 쌓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세계수영대회의 경우 총사업비 1935억원 중 순수 시비만 714억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도시철도 2호선도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6대 4여서 총사업비 2조원 중 8000억원 상당을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할 처지다. 또한 군공항 이전 사업비와 이전부지 개발을 비롯해 공원일몰제 토지보상비, 어등산관광단지와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시비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 예산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빚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첫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40조원을 돌파하면서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수백 억원에 이르는 매칭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면서 복지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인 광주로선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국민·광산1) 운영위원장은 "국내 17대 특광역시도 중 광주가 3번째로 부채 비율이 높고 도시철도2호선 등 추가로 채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채무를 10%대로 낮추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채무경감 대책으로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무 상환금으로 확보해 채무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일째 산불과 사투 벌이는 LA소방관

로스앤젤레스 북부 오하이 인근에서 거대한 산불과 싸우고 있는 소방관들이 토머스 파이어가 퍼지고 있는 북부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서부에서 동시다발로 발화해 6일째 불길이 번지면서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지역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로 군과 연방 인력, 주 방위군 등이 총동원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주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도전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의 권력' 출판기념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도전에 나서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지난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저서인 '광주의 권력'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시민을 비롯한 지지자 등 5000여명이 참석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함께 생각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강기정 전 국회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40명의 인사들이 영상메시지 등을 통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민 청장의 '광주의 권력'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겨있다"고 극찬했다.

이번에 출간한 '광주의 권력'은 촛불혁명, 문재인 대통령 당선, 자치분권 개헌, 2018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좋은기회'를 광주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를 담았다.

민 구청장은 책 프롤로그에서 "광주가 '민주주의 성지'를 밑거름 삼지 않고 '잘 사는 도시'로만 접근하면 개발위주의 성장 전략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정의로움을 기반으로 인간 중심의 풍요로움을 성취하는 도시가 '민주주의 정원' 광주"라고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장 출마시사 최영호 남구청장 지지 '상생포럼' 출범

광주·전남의 현안과 미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시민네트워크 '상생포럼'이 출범했다.

10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시민대표와 정치인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과 전남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이개호 국회의원이 특별게스트로 참석,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희망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촛불집회 사회를 봤던 방송인 백금렬씨와 정치평론가 김남국 변호사가 진행했다.

최 구청장은 토크쇼에서 "전라도가 상생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천년을 맞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전라도 미래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광주·전남 상생의 시급함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상생의 지혜는 좁은 의미의 지역적 상생뿐 아니라 남녀간, 계층간, 국가적, 균형발전과 균등한 행복을 추구하는 화두다"며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구청장의 외곽 지지모임으로 알려진 '상생포럼'은 박용현 조선대 명예교수와 안태자 아시안밝음공동체 이사가 상임대표를 맡는다. / 최권일기자 cki@

전남도, 소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확인

올 검사 결과 모두 음성

농장 감염률 제로 달성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역 한우, 육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를 한 결과 청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73개 농가, 560마리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생겨 농장 감염률은 0.06%였다.

하지만, 이 기간 전남에서 31만100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농장 감염률 제로를 달성했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거래되는 모든 소는 반드시 브루셀라병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역 위반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 브루셀라병은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암소에서 불임증과 임신 후반 유산을 일으킨다.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식욕 부진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정지영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른 시·도에서 최근까지 발병한 만큼 앞으로도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세 이상 모든 암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수영대회 후원기업 부가세 경감…성공개최 청신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후원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회 성공 개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0일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기업들이 광주수영대회에 현물(재화 또는 용역)을 후원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83% 경감하는 과세특례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경기대회 후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만 예외적으로 한시 적용해 준 특례다.

그동안에는 국내 후원기업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을 후원할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게 돼 후원기업 유치에 애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1년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국내 기업 후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조직위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광주세계수영대회 관련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은 유보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 중기지원센터→중기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거쳐 기관 명칭을 전남 중소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집적화를 통한 지역 기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명칭 변경 지침에 따라 2010년부터 차례로 명칭을 바꿨다.

전남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 근거를 마련했다.

우천식 전남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은 "기관 명칭 변경을 계기로 전남 중소기업 지원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전남도 연계 수탁사업 추진, 국비 사업 발굴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8학년도 신·편입생 및 외국인학생 모집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사자격 미소지자 지원 가능)

1. 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302명(야간제, 계절제)
2. 전형구분 – 야간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시·도교육감 추천, 외국인 학생, 편입학)
   – 계절제: 일반전형, 특별전형(외국인 학생, 편입학)
3. 모집전공 (20개 전공, 계절제는 일부 전공 제외)

초등도덕교육	초등국어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초등수학교육
초등과학교육	초등체육교육	초등음악교육	초등미술교육
생활융합교육	초등영어교육	컴퓨터교육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정책	교육상담	유아교육	다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기획	아동문학교육	발명영재·로봇교육	진로진학컨설팅교육

4. 지원자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교육상담 전공은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3년 이상 교육경력).
5. 원서접수: 2017.12.5.(화) ~ 12.14.(목)
   ※ 인터넷 접수[http://www.uwayapply.com(유웨이어플라이)]
6. 장 학 금: 입학·수업료장학금, 공로장학금(원우회), 주임교수추천장학금, 해외연수장학금 등
7. 특 전
   ▶ 교육상담 전공 졸업시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초등 2급 이상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경력 3년 이상자)
   ▶ 졸업시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초등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졸업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유치원 2급 정교사 중 교육경력 1년 이상자)
   ※ 위 특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은 교사 또는 기타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
8. 자세한 사항: 광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모집요강) 참고
   ※ 문의: 062)520-4082~3, http://www.gnue.ac.kr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